



포덕 156년 천일기념

새로움의 시작 동학



올해 2015년 4월 5일은 천도교가 창도 된 지 156년째를 맞이하는 천일기념일(天日紀念日)입니다.
천일기념은 천도교 교조(敎祖)이신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대신사(大神師)께서 1860년(布德 元年) 4월 5일 한울님으로부터 만고 없는 무극대도(無極大道)를 받아 천도교(동학)를 창도한 날을 기념하는 천도교(天道敎)의 최대 경축일입니다.

Chonil Anniversary



천도교중앙총부





수운 최제우 대신사 존영

“산하의 큰 운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도다. 나의 심주를 굳건히 해야 이에 도의 맛을 알고, 한 생각이 이에 있어야 만사가 뜻과 같이 되리라.

흐린 기운을 쓸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 아기 기르듯 하라. 한갓 마음이 지극할 뿐 아니라,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은은한 총명은 자연히 신선스럽게 나오고, 앞으로 오는 모든 일은 한 이치에 돌아가리라. 남의 적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

— 동경대전 중 탄 도유심급 중에서



포덕 156년 천일기념
기념관

식 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 전 봉 독 _ 포덕문

1. 천덕송 합창 _ 기념송 1~3절

1. 기 념 사

1. 축 사

1. 천덕송 합창 _ 천일기념가

1. 심 고

1. 폐 식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 씨 옥과 모친 한 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언(道彦)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호암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호암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 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 포덕 1년(1860)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언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
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 포덕 3년(1862)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隱跡庵에 은거하시다.
 1월 권학과와 논학문을
 6월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7월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9월 많은 제자가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 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12월 26일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포덕 4년(1863) 최초로 임명하시다.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4월 좌잡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6월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에 가르침을 베푸시다.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8월 초순 흥비가를 지으시다.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12월 10일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붙잡히시다.
 대신사와 이내검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포덕 5년(1864)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1월 6일 대구 감영에 갇히시어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 (41세)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수운 최제우 대신사께서 천도교를 창명하신 포덕 156년 천일기념일을 동덕 여러분, 동포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경축합니다.

경신(1860) 사월 초오일, 수운대신사께서는 한울님으로부터 오심즉여심(吾心即汝心)의 심법(心法)과, 공부와 수행의 요체로서 주문(呪文)과 영부(靈符)를 받아 포덕(布德)의 새 문을 여셨습니다. 그 덕분에, 무시이래(無始以來)로 조화(造化)를 쉬지 않으신 한울님 마음과, 온 세상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고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수운 대신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후천 오만 년의 무극대도가 이 땅에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선천 관념을 씻어 버리고,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선천의 낡은 껍질을 깨고 새 인간이 될 수 있었으며, 지구생명공동체, 나아가 우주 삼라만상의 의미가 새로이 정립되었습니다.

오늘의 기쁨과 큰 뜻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이 모든 성취를 가능케 한 한울님 조화의 자취, 스승님 구도 일생을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何爲若然也)”라는 한마디 물음으로 귀결하여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음은 경신년 4월 5일, 접령강화(接靈降話)의 기운과 가르침에 응하여 수운대신사께서 한울님께 다시 물어 본 말씀입니다.

무엇을 묻느냐, 어떻게 묻느냐 하는 것이 대답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으로 천도교를 신앙하며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전망하게 된 것은 그날 그때 그곳에서 수운대신사께서 “어찌하여 이렇습니까?”를 바로 물음으로써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날 이후 수운대신사와 한울님 사이에 수많은 문답이 오가고, 신유(1861)년 이후로 수운대신사와 제자들 사이에 명문현답(明問賢答)이 오가며,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상사 시대로 사사상수(師師相授)하며 바르게 묻고 바르게 답하는 절차와 도법 속에서 동학 천도의 무궁한 그 이치가 밝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 참으로 감탄할 일이다. 그대들의 도를 물음이 어찌 이같이 밝고 밝은가!” 하신 찬탄은 수운대신사 스스로에게 돌려질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한울님 스승님과 선학들의 성령(性靈)으로부터, 그리고 이 시대의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야 할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던질 물음은 “우리는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가는 중도에서 가야 할 방향을 잃었을 때 출발점에서 다시 생각하듯이, 마음에 잊고 잃음이 많을 때 한울님께서 주신 명(命)을 돌이켜 보듯이, 오늘 천도교인으로서 우리는 경전에 비추어 내 삶의 일동일정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땅의 종교인들이 각자 자기 경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는 지를 묻고 참회하며 각자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갈 때만이 이 세상에 참된 봄소식이 전해지고, 온 세상이 꽃이로다. 하신 스승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천도교인들이 솔선수범하여 경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풍토를 널리 펼쳐 나갈 때입니다.

올해부터 천도교단이 앞장서고 전체 종교인들이 동참하며, 부모들과 교사를 비롯한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후원하는 가운데 전개할 “어린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이 시대의 어린이 운동은 바로 ‘경전 실천’의 첫 출발점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일찍이 해월신사께서는 수운대신사의 ‘시천주(侍天主)’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궁행하는 출발점으로 “어린 아이도 한울님이니, 어린아이를 치는 것은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라”는 법설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어린 아이 때리지 않기’는 우선은 어린이를 한울님처럼 모시는 운동이며, 나아가 그 문화와 정신으로 이 사회를 재편하고, 이 시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의 틀을 펼쳐나가는 개혁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의암성사께서 시천주(侍天主)와 사인여천(事人如天)을 인내천(人乃天)이라는 말씀으로 정립하신 대로, 사람이 이에 한울이 되도록 하는, 말씀의 실천운동이기도 합니다.

동덕 여러분! 올해는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대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실행하는 첫해로서, 국가의 지원 속에 앞으로 4년 동안 펼쳐 나갈 100주년 사업의 기틀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용담정을 비롯하여 은적암과 갑둔리 유적 등을 정비하고 성역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거두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야말로 후

천 오만 년 무극대도의 원천을 맑고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성업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의 실질적인 확정으로, 천도교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마련하는 해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선언한 대로 “갑오년을 맞아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 우리나라 일이 이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어 세계인민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교단이 벌이는 사업들은 역사와 현실에 충실하면서, 근본적으로는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오늘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실천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근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함께하시고 지혜와 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천도교인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어제와 다른 변화가 거듭되는 가운데, 삶의 방향을 놓치고 방황하며, 마음에 잇고 잃음이 많은 시대입니다. 수운대신사께서는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는 그 길은 ‘내 믿음이 한결 같은가를 헤아리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천도교 창명의 복된 날을 맞아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믿음과 공경과 정성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수운대신사께서는 포덕을 결심한 이후 손수 법을 펴는 자리를 마련하고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며 새 길을 구하는 가운데, 그중에 어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 천도교의 행보를 주목하며 기대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그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신유포덕의 그날처럼, 천도교의 문을 열어 세상 사람을 맞이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이한 북녘의 동덕 여러분, 동포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의 남북 정세는 어렵고 힘든 고비에 봉착해 있습니다. 천도교인들이 앞장서서 보국안민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여 동학농민혁명과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남과 북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고비를 지렛대로 삼아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마는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 하신 말씀이야말로 지금 우리 민족 앞에 놓인 깊은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합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온 세상의 사상과 종교, 철학과 문화가 공존하는 전 세계 강대국의 눈과 귀가 쏠리고, 온갖 첨단 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있으며, 생명평화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약육강식 무한경쟁의 전근대 사회로 회귀할 것인지를 갈음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낡은 정치경제 풍토와 불의한 관행들이 새롭고 정의로운 새 시대의 도래를 막아서며 발버둥을 치는 형국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안락에 휩쓸릴 것인가, 구각(舊殼)을 깨는 아픔을 견디며 새봄을 맞이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

찌하여 이렇습니까?” 한울님 마음을 지켜 내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해답을 구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산하대운(山河大運)이 진귀차도(盡歸此道)하는 징조의 이면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다음 물음은 “지금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며 죽음이 만연한 각자위심(各自爲心)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후천개벽의 새봄이라는 미래(未來)를 현실화(現實化)하는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주역이 될 것인가?”로 이어 집니다. 바른 물음 속에 이미 바른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의 동덕 여러분, 동포 여러분!

한울님과 스승님의 은덕으로 이 땅에 무극대도가 창도된 천일기념일을 맞이하며, 내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고 맑게 열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심고합니다.

포덕 156(2015)년 3월 10일

교령 박 남 수 心告

제13장 기념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올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회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회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닷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중 을 시 고 중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중 을 시 고

제15장 천일기념가

1. 한 울 님 의 높 으 신 - 목 소 리 로
 2. 한 울 님 은 두 려 말 - 라 하 시 - 며
 3. 한 울 님 이 우 우 리 스 승 - 나 - 서
 4. 한 울 님 이 우 우 리 스 승 - 나 - 서
 5. 한 울 님 이 우 우 리 스 승 - 나 - 서

1. 우 리 스 승 을 크 게 부 르 실 - 때
 2. 우 리 스 승 을 크 게 부 르 실 - 때
 3. 처 음 으 로 - 마 그 음 진 정 하 실 - 때
 4. 내 마 이 으 음 이 곧 그 공 이 루 실 - 때
 5. 맘 이 기 - 뼈 헤 를 로 즐 기 실 - 때

1. 구 질 구 질 오 - 는 비 는 개 었 고
 2. 맑 - 은 밤 오 바 람 은 처 천 는 히 불 고
 3. 큰 - 을 깨 부 르 치 우 는 는 님 소 리
 4. 잔 - 나 비 치 러 음 는 - - - - - 해
 5. 온 우 주 를 비 치 러 음 는 - - - - - 해

1. 검 은 구 름 은 사 라 졌 구 나
 2. 용 담 물 결 은 고 요 하 구 나
 3. 새 벽 의 소 식 을 전 해 주 누 나
 4. 봉 황 의 소 식 을 전 해 주 누 나
 5. 동 실 동 실 - 실 때 - 오 른 다

후렴

거룩하신 스승 말씀에

사람이 곤한 울인 - 즐

우리들이 깨달았으니

잊지 못할 이 --아 - 침



포상 및 장학증서 수여

대외협력부문

김장실 김석태 김대곤

유공교인포상

최상은 김성환 외

장학증서수여

김진우

천일기념 맞이 나눔축제

꽃 피는 봄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떡 잔치를 합니다.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

장소 : 서울노인복지센터 외

일시 : 4월 5일 10시부터

天日紀念



천일기념 경축 음악제

1부(3시~3시 50분) 사회 : 김원효(KBS 개그맨)

- 개회
- 인사말씀 김인환 중무원장
- 시 낭송 전경숙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니라-윤석산」
- 아프리카 타악그룹 콤바야 「새로운 희망」 외 5곡
- 창 박혜련 「안심가」 「몽중노소문답가」 춘향가 중 「사랑가」
- 퓨전공연 TAAL(딸) 「배치기」 외 2곡 양승환 외 4명

2부 (4시~5시) 사회 : 김원효(KBS 개그맨)

- 피아노 연주 김서연 「슈베르트 즉흥곡 2번」
- 비보이 공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 대합창 「한울세상」 천도교 서울·영등포 연합합창단
「샘」 천도교 서울·영등포 연합합창단
「울어라 열풍아」 김나형, 천도교 서울·영등포 연합합창단
- 오케스트라 위즈심포닉밴드 「로스로이」 외 1곡 지휘 염지훈

아프리카 타악그룹 콤바야

2003년에 창단하여 아프리카 타악기와 리듬을 소재로 음악을 구성하여 연주하는 국내 최초 최고의 아프리카 타악 그룹이다. 서부 아프리카 전통 리듬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리듬감을 가미하여 순수하면서 열정적인 아프리카의 소리를 공연에 담고 있는 콤바야의 공연은 조금씩 더해가는 아프리카 리듬의 경쾌함으로 관객에게 떠나온 먼 옛날의 자연과 아름다운 고향의 정서를 선사한다.

TAAL(딸)

TAAL(딸)이라는 단어는 인도, 파키스탄에서 리듬이나 장단을 의미하는 말로, 리듬을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명의 뮤지션들이 모여 파키스탄의 까왈리와 한국의 전통적인, 특히 서도민요적인 창법을 결합해 독특한 음악세계를 펼치고 있다.

위즈 심포닉밴드(WIZ Symphonic Band)

위즈 심포닉밴드는 30여 명의 연주자가 최고의 음악과 재미, 즐거움, 박찬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최고의 윈드오케스트라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의 졸업생 및 재학생과 우수 음악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된 심포닉밴드 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Tel. 02-732-3956 Fax. 02-739-4533
www.chondogyo.or.kr